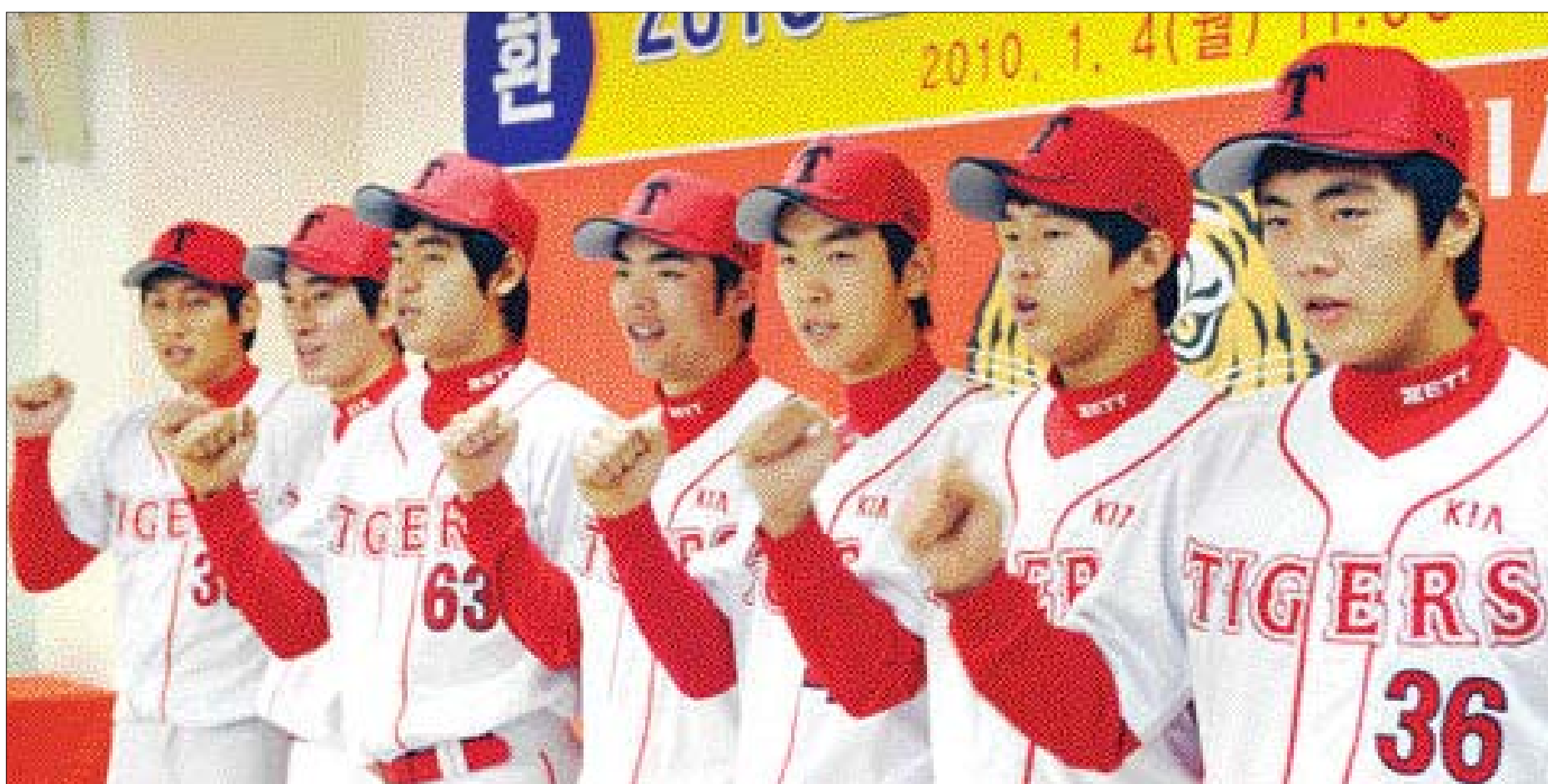




은세계로의 새 세상 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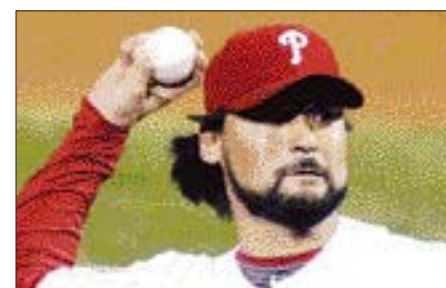
스위스 스키선수 사이몬 앰만이 4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노르드케트 산 앞에서 열린 포힐스 스키점핑 토너먼트에서 화려한 점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도 KIA 타이거즈 신인선수 입단식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다리 부상으로 불참한 포수 김태훈을 제외한 7명의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동섭·임기준·이인행·임현용·이제우·홍재호·이정훈 선수. /김영수기자 jeans@kwangju.co.kr

필라델피아 떠난 박찬호

새 등지 어디에 틀까



볼을 회복한 박찬호는 지난해 45경기에서 3승3패 평균자책점 4.43을 남겼고 특히 구원 투수로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2.52로 맹활약했다. 연봉 인상 요인은 충분한데다 2년 연속 중간 계투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기에 내년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각 구단이 거물급 선발 투수에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불펜 투수와 마무리 투수에게는 화통하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나온 'FA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아직도 계약하지 못한 불펜 투수들이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호가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다면 가장 조건에 들어맞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박찬호와 비슷한 활약을 했던 밥 하우리가 에리조나로 떠나 이를 메울 필요가 있다. 샌디에이고 사령탑 시절 인연을 맺은 브루스 보치 감독이 팀을 지휘하고 있어 박찬호로서도 낯설지 않다.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는 '친정'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함께 서부지구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으로서 박찬호에게도 매력적이다.

박찬호가 구원과 선발투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선발 자원이 확실하지 않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등도 러브콜을 보낼 팀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사실상 결별한 박찬호(37)가 어느 곳에 새 등지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필라델피아가 새해 첫날 쿠바 출신 구원 투수 데니스 바에스와 2년간 계약하면서 박찬호가 필리스에 잔류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박찬호는 지난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6팀이 자신을 원한다. 윈터미팅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4일까지 현지에서 들려온 소식은 딱히 없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한 기자가 연초 블로그에서 '박찬호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내부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정황을 종합할 때 박찬호는 선발로 뛸 수 있는 팀 또는 구원 투수로 뛸다면 지난해보다 금액에서 나온 조건을 제시할 팀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는 박찬호에게 지난해보다 50만달러 오른 3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세계 약에 실패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한편 이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로 서울·경기 지역의 선수들이 늦게 도착하면서 입단식이 4시간가량 연기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작아보이지만 어린선수 답지 않은 패기를 보이고 있다"며 "김상훈 선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기 호랑이'들의 조련을 맡은 조범현 감독은 신인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며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로 서울·경기 지역의 선수들이 늦게 도착하면서 입단식이 4시간가량 연기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용병 구름슨이 KIA를 떠난다. KIA 타이거즈는 4일 "구름슨에게 지난 12월31일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구름슨이 이를 거절하면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IA타이거즈는

와 운동을 하며 진정한 프로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며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중간에서 선발까지 성장한 양현종 선배를 닮고 싶다"고 말했다.

2차 1지명인 좌완 임기준(진흥호·좌투좌타)도 양현종을 롤모델로 꼽으며 "선배들과 힘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만 힘을 길러서 KIA의 약점이 좌완 중간계투로 활약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야수 이인행(덕수고·우투좌타)과 홍재호(고려대·우투우타)는 대선배 이종범을 닮고 싶다는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인행은 "힘이 부족하고 스피드와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지만 근성이 있고 큰 게임에 자신이 있다"며 신인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호도 "이종범 선배를 보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수비가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특유의 파이팅으로 팀

아기호랑이들 프로무대 힘찬 첫 발

심동섭·임기준 등 신인 선수 7명 KIA 유니폼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들이 프로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심동섭·임기준 등 2010 신인선수 7명이 4일 광주 서구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KIA 유니폼을 입었다. 김조호 단장은 "호랑이해 호랑이 구단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을 환영한다"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KIA 타이거즈 우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각오를 다진 선수들은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프로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좌완 심동섭(광주일고·좌투좌타)은 "입단 전 선배

들과 운동을 하며 진정한 프로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며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중간에서 선발까지 성장한 양현종 선배를 닮고 싶다"고 말했다. 2차 1지명인 좌완 임기준(진흥호·좌투좌타)도 양현종을 롤모델로 꼽으며 "선배들과 힘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만 힘을 길러서 KIA의 약점이 좌완 중간계투로 활약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야수 이인행(덕수고·우투좌타)과 홍재호(고려대·우투우타)는 대선배 이종범을 닮고 싶다는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인행은 "힘이 부족하고 스피드와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지만 근성이 있고 큰 게임에 자신이 있다"며 신인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호도 "이종범 선배를 보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수비가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특유의 파이팅으로 팀

우승행보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섭을 존경하는 선배로 꼽은 외야수 임현용(건국대·우투좌타)은 "파워를 길러야 하지만 스피드와 수비에 자신이 있다. 김원섭 선배처럼 공수에서 모두 활약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신인고 출신의 외야수 이제우(우투좌타)는 "선배들과 운동을 하면서 아직 내가 많이

특급 용병 구름슨 재계약 불발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용병 구름슨이 KIA를 떠난다. KIA 타이거즈는 4일 "구름슨에게 지난 12월31일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구름슨이 이를 거절하면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IA타이거즈는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구름슨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물색중이다. 일본무대를 거쳐 2009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구름슨은 선발로 활약하며 3.24의 방어율로 13승4패를 기록했다. /김영수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아시안게임 전원 프로선수로 구성

일본 야구가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전원 프로 선수로 이뤄진 대표팀을 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인터넷판에서 이같이 전하고 프로 12개 구단 의사결정체인 일본야구기구(NPB)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4년전 도하 아시안게임에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내보냈던 일본은 이번에는 프로와 아마추어 혼성으로 대표팀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야구기구(NPB)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4년전 도하 아시안게임에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내보냈던 일본은 이번에는 프로와 아마추어 혼성으로 대표팀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야구기구(NPB)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4년전 도하 아시안게임에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내보냈던 일본은 이번에는 프로와 아마추어 혼성으로 대표팀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야구기구(NPB)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